대불청, 청년·문화포교사업 '본격화'

6월 20일 서울 성북동에 만해평화센터 개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0년 창립 100주년을 기해 청년포교 거점으로 추진된 만해평화센터 불사가 6월 20일 성만됐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서울 성북동 불사현장에서 만해평화센터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한불교청년회의 100년 대계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건물 매입 후 내부불사를 진행해 왔다. 만해평화센터는 1층 교육관과 함께 2층 법당 등 총 20평 규모로 건립됐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정각, 정법, 정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불자들의 자립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만해 선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쇄신을 위한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겠다"며 "지금은 비록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는 200평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초석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대불청 지도법사인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경산 원효암 주지 활안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배 성북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마가 스님은 만해평화센터 개관을 기념해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대불청에 기부했다.

마가 스님은 "대한불교청년회가 만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100년 동안 이어왔다. 3.1운동을 했던 정신을 되살려 심우장 인근에 또 다른 청년포교 거점이

지난해 건물 매입 후에 불사
2층 규모 교육관·법당 사용
"불교 쇄신 보금자리로 가꿔"
주민 개방… 지역 포교 활용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만해평화센터가 포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주길 기원했다.

범해 스님은 "만해평화센터는 만해스님의 기백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수행공간"이라며 "청년포교의 구심


대한불교청년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만해평화센터 건립 불사의 개관법회를 6월 20일 성북동 불사현장에서 진행했다.

점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동력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향후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평화센터를 개방하여 문화포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해평화센터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대불청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불교의 항일 독립투쟁 역사와 만해 스님의 3.1운동에서의 역할과 해방 전후 불교청년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만해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불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만해스님 따라잡기-만해로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차 년도 사업으로는 '만해 독립의 길'을 주제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2차 년도인 올해에는 '만해 구도의길'을 주제로 역사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에는 '만해 문학의길'을 주제로 문학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불청 100년사 발간 작업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진행 중에 있다.

대불청은 "만해 스님의 불교 개혁 및 독립사상을 통일정신으로 전환하여 남북 불교청년들이 통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3관음성지, 새로운 구도 여정 되길"

문화사업단, 전통사찰 순례 회향 증서 수여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3일 2021년 제1차 한국 전통사찰 순례 회향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인 '한국 33관음성지'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책자에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총 5명이 회향을 마쳤으며, 이 중 3명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나란히 순례를 완료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철, 이금숙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불교란 무엇인지, 각 사찰의 문화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회향 완료자인 신규태 씨는 "내려놓음과 비움, 힐링의 순간들이었다"며 "나를 오롯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증서를 수여한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원돈 스님은 "원만 회향을 축하한다. 순례의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 안의 부처님일 것"이라며 "이번 회향을 계기로 또 다른 새로운 구도의 여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2021년 1차 회향식에 이어 8월과 11월에 2차 및 3차 회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지난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전통사찰 순례를 기획해 지금까지 총 82명에게 회향 증서를 수여했다. 한국 33관음성지 책자 관련 문의 및 회향 완료 접수는 문화사업단 홍보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 33관음성지 책자에 수록된 사찰은 고운사, 구룡사, 금산사, 기림사, 낙산사, 내소사, 대흥사, 도선사, 동화사, 마곡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리암, 보문사, 봉은사, 불국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신륵사, 신흥사, 쌍계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조계사, 직지사, 통도사, 해인사, 향일암, 화엄사이다.

신성민 기자



회향 증서를 받은 순례 완료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기철, 이금숙 부부, 원돈 스님, 신규태 씨.

동국대 발전기금·장학금 전달 잇달아

자승스님 2억 원 '쾌척'해
호산스님 2천만원 기부도
총동창회 등 장학금 전달

동국대 발전과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2일 동국대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건학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동국대 법인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전달 직후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오늘 자승 스님께서 희사한 발전기금 2억 원은 학교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억 원을 기반으로 2000억 원의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국대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호산 스님은 6월 22일 법인 이사회에 앞서 법인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지난해에도 법인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어 총 5000만 원의 기금을 학교법인 동국대에 전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2일 열린 2차 최고위원회 회의서 동국대 법인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5000만 원을 쾌척한 호산 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동국대가 세계 제일의 대학이 되도록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박대신)는 6월 18일 비대면으로 (재)동국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동국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인 동국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번 경주캠퍼스 수여식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에게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장학생들은 장학증서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순표 (재)동국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후배 여러분들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사진으로 동국인의 기상을 볼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에서든 동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용맹하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동문 91학번 동기는 6월 18일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81학번 박태영 서현개발(주) 대표와 11학번 박병현 SK임업 대리 부자가 조경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응주 조경학과 91학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커밍데이가 취소되어 교수님과 후배들을 뵙진 못하여 아쉽지만,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동국 조경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영 서현개발(주) 대표는 "올해는 제가 동국대 조경학과에 입학한 지 40년이 된 해이자, 11학번인 아들이 입학한 지 10년이 된 해"라며 "선후배 사랑과 학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아들과 함께 뜻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레협, 온라인 지도자 강습회

7월 3일 줌·밴드 통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가 7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휴식 같은 하루-心쉼'을 주제로 제67회 여름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과 동영상 강의(BAND)로 진행된다.

강습회서는 혜정 스님의 '나의 가능성 알아보기', 전영은 강사의 '종이접기 만다라', 유상진 강사의 '랜선체크', 진성철 강사의 '율동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습회는 계층법회 지도자, 포교사, 지도법사, 템플스테이 소임자 등 관심이 있는 이라면 모두 참여가능하다. 참가자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불레협 측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회를 지도해 오신 지도자분들을 위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교활동과 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불레협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된 단체로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와 법회와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강습회를 년 2회 여름, 겨울 개최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